

하버마스의 학문여정 깊이있게 요약 한국사회 현실에도 적잖은 울림

하버마스

발터 레제 - 쉐퍼 지음/선우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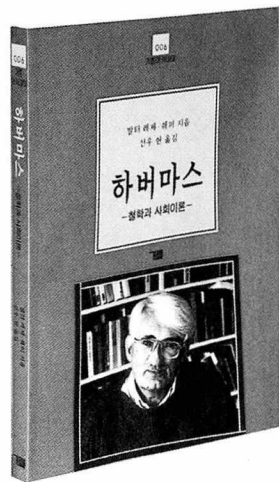
거름/A5신/256면/10,000원

하버마스는 1996년 방한해 우리 학계와 지식인 사회에서 열띤 관심의 표적이 되었고, 명성에 걸맞은 진지함과 해박함을 보여준 바 있다. 개념의 생산이 사상가의 주요 과업이라 한다면, 하버마스는 생존해 있는 20세기 최대 사상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마땅할 것이다. 몇년 전에 《교수신문》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의 세 영역에서 생존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가들이 누구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하버마스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두 영역에서 동시에 1위로 뽑혔다.

하버마스의 세계적 명성과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인지도에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는,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의 기풍이 널리 퍼져 있는 세기 말의 현실에서도 일관되게 삶과 사회의 합리화라는 꿈을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하버마스는 역사유물론, 비판적 합리주의, 철학적 해석학, 체계이론, 사변적 형이상학,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사회정리론 등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임으로써 '실천적 의도를 가진 이론'으로서 입안된 비판 사회학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

서양 합리주의 사상의 정수를 이어받은 하버마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증폭되는 현상은 복합적으로 해독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적 이성의 형성과정과 미래 전망에 대한 하버마스의 포괄적이고 정교한 반성작업은 서양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모든 논자들이 도전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서양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도 하버마스는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큰 봉우리라는 것이다. 실천적으로는 공론장이나 담론적 법치국가, 토론 민주주의 같은 하버마스의 패러다임들이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해가는 한국사회 현실에도 적잖은 울림을 갖는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론의 철학적, 현실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하버마스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상가로서 하버마스가 과시하는 압도적인 넓이와 깊이는 자연 그에 대한 주석과



해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구미에서 갈수록 활발해지는 '하버마스 산업'이 생산해내는 술한 단행본과 연구논문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의 체계의 일부분이나 특정 논쟁점만을 다루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전문가들이 쓴 연구서가 몇권 나온 적이 있지만 하버마스의 체계를 균형 있게 해설한 입문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레제-쉐퍼가 지은 《하버마스》는 이같은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독일에서 출간된 이 책은 그때까지 이루어진 하버마스의 학문적, 실천적 여정을 간명하게 요약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깊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했다.

하버마스의 원저작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 특유의 압축적인 글쓰기와 서술의 건조함은 독서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 중요한 사상가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원저작을 직접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전제된다면, 레제-쉐퍼의 《하버마스》는 우리가 직접 그의 책들을 읽기 전에, 또는 읽는 도중에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저서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 맑스주의》 외.

지역경제 문제의 입체적 조명 성과 IMF사태 관련 제한적 내용 아쉬워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

김익수·오연천 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A5신/578면/15,000원



한국경제가 지난 30여년 동안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휘 아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국제경제 여건하에서 현재와 같은 국가 중심의 경제구조와 체질로 여전히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비용 저효율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중앙집권적 의식과 행태로는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IMF체제하에서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위기에 서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국가보다는 신속적이고 적응력이 높은 지방이 더욱 활발하게 뛰어야 하고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지역경제가 전국 곳곳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지방화, 분권화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발간된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은 주목할 만한 저서다.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려고 시도하였고, 변화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더욱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원내의 20명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지역경제정책과 관련된 30개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이 책은 학계와 실무진들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문헌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내용과 구성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정책의 관심영역을 더욱 확대하려는 진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정책의 주된 관심사는 지역산업 및 지방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지역경제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하에 이들을 전략화할 수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 제2편의 국제사례를 통한 대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전략과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방향을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제3편에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담은 것들이 좋은 예이다. 또한 이 책은 지역경제문제의

본질을 둘러싼 다소 학구적인 논문과 지역경제행정의 일선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현황들을 담은 실무적인 논문들을 번갈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정책적 이슈에 대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느껴지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아쉬움은 제목과 내용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다. 예를 들면, 본서의 부제는 'IMF 위기의 도전과 극복을 위한 가이드'라고 명명되어 있으나 실제 IMF사태와 관련지어 지역경제문제를 다룬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IMF사태가 지역경제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편 제5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사례제시가 좀더 체계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국가별로 몇 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제1편부터 제4편까지 지역경제에 대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산업과 지역경제, 물리적 환경과 지역경제, 사회적 환경과 지역경제, 공공부문과 지역경제 등) 제5편에서는 해당 주제들에 적합한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허재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저서 《도시경제론》, 《한국지역경제론》 외.

면역학의 최신 개념과 이론 해석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자기구속은 한계

면역의 의미론

타다 토미오 지음/황상의 옮김

한울/A5신/230면/8000원

일본의 저명한 면역학자가 쓴 이 책은 면역학의 최신 개념과 이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명과학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저자가 말한 대로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새로 발견한 생명현상들이 안겨다주는 재미에 집중하다보면,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묻지 않게 된다.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지식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현상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후자의 경우에 학문의 문화적 인프라는 사상누각과 같아서 학문의 식민성은 극복될 수가 없다.

면역을 자기의 인식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저자는 '신체적' 자기와 '정신적' 자기를 구분하면서도 양자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는다(1장). 소위 정신면역체계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도 그가 이 점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것은 정신과 신체를 이분화하는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생의학적 패러다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원전 40년 무렵에 로마의 해부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존재가 알려진 흉선(胸腺)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왜 흉선의 암흑시대는 이렇게 길었을까. '자기'와 '비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흉선의 기능(2장)에 대해 서양의학이 이토록 무심했던 것도 서양의학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에 연유한다. 면역학자로서 그가 지켜보았던 네트워크의 개방과 몰락(3장), 인터루킨 왕국의 흥망(4장), 슈퍼시스템의 조건과 한계(5장)도 '신체적' 자기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자기 구속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의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노화(6장), 에이즈(7장), 알레르기(8장) 등을 논의 하면서, 그는 '면역계의 반란' (10장)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결국에는 '면역으로부터의 도주' (11장)를 시도한다. 여기서 저자는 '해체된 자기' (12장)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와 비자기의 정체가 무너지는, 자기와 비자기는 선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기와 비자기에 대한 이런 변증법적인 종합은 생태적인 패러다임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한두 줄로 그치고 있다(190쪽). 겨울에는 해로운 벌레지만 여름에는 건강에 좋은 풀이 되는 동충하초(冬蟲夏草)는 생태적 환경이 변하게 되면 자기와 비자기가 뒤바뀌는 단적인 예에 해당하는 식물이다.

이 책의 번역자는 의사학자로서 면역학자가 아니면서도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것을 면역과 면역학의 의미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 저자의 자세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번역자는 '무모함'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학문의 가로지르기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권려(勸勵)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종찬

아주대 의대 교수. 저서 《의사, 권력 그리고 병원》, 《서양의학과 보건의 역사》, 역서 《하버드대학병원의 의사가 되기까지》 외.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살리기 캠페인 1

가정전문서점, 어떨까요?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하는 출판계가 살아나려면 유통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나 오래 해왔습니다. 많은 출판사들이 대형 유통기구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면 클수록 관료화 되기 쉽고 경쟁력을 잃기 쉽습니다. 유통의 현대화와 과학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출판사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신간 중심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유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좋은 책들만 엄선하여 유통시키는 가정전문서점을 대안서점의 모델로 선보이고자 합니다. 가정전문서점은 오는 5월 7일에 서울 구로동에 20평 규모의 모델서점이 첫선을 보이게 되며, '98 서울도 서전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체인형태의 유통망 구축을 모색할 것입니다. 꼭 저희와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기존의 서점이 특화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출판 유통은 다원화 되어야 하며, 부문별로 특화시키거나 전문화하여 든든한 독자 계발에 나서야 합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제시하는 대안서점으로서 가정전문서점은 기존의 지역서점들이 어떻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정의 행복을 꼽고 있습니다.

■ 가정을 주제로 한 출판물 유통보급, 가정을 주제로 한 원고 출판 상담, 총판 상담을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 특히, 기업 상담 환영



아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로저 소넨버그/이용태/B5변형 /244쪽/7,000원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해 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501가지 방법



부부 커뮤니케이션

가끼다니 마사키/조영삼/A5신 /160쪽/3,800원

행복한 부부 관계가 있는 곳에 행복한 인생이 있다. 부부 문제의 해결과 예방 지침서



아름다운 날 좋은 사람과 함께

황연옥/A5신/232쪽/7,000원

흔들리는 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초등학교 교사가 들려주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

예영커뮤니케이션

100-616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661
출판부 T. 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 830-8566 F. 830-8567